

“경제효과 600억 ... 2024년 한국 개최 최선 다할 것”



군장병도 명품 숲길 만들기 나섰다

육군 51군수지원단, 너릿재 흑서기 마라톤 참여

군인들이 지역 명품 숲길 만들기에 동참했다. 육군 51군수지원단 정비 근무대(정비대장 김양준 중령) 소속 장병들은 광복 71주년인 15일 광주일보가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 제2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행사장을 찾아 전국에서 온 마라토너들과 따라 숲길을 달리며 지역 명소를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또 대회가 끝난 뒤 너릿재 옛길 일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책로 주변 정화 활동을 벌였다. 51군수지원단 정비 근무대 장병들은 매일 두 차례씩 환경 정화 운동을 벌이는 등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행사도 광복절을 맞아 선조들의 향일 민족정신을 되새기면서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 10선'에 선정됐던 지역 유명 숲길을 보전하고 알리는 취지에서 참여하게 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세계지질학 학술대회 유치 나서는 허민 전남대 교수

허민(56)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세계 최대 규모 학술대회로 꼽히는 '세계지질학 학술대회'(IGC·International Geological Congress) 유치를 위해 오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한다. 현재 대한지질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 교수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2016 IGC 총회'에 참석해 IGC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종 투표결과는 9월1일 현장에서 발표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행사유치에 나서는 허 교수는 "부담이 없지 않지만 오는 2024년 IGC가 한국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IGC는 국제지질과학연합(IUGS·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이 개최하는 총회로, 지질과학의 기초응용연구, 정보교환, 학사교류 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1878년부터 3년 주기로 열렸으나 1906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남아공, 2020년에는 인도에서 열린다.

121개국 6000여명 회원 방문

세계 최대 규모 학술대회

무등산 주상절리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

보통 다른 학계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지질학의 경우는 전 세계 단일 학회만 있는 데다, IGC는 121개국 6000여명의 회원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학술대회다. 경제효과도 600억원에 달해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허 교수는 "2024 IGC 한국유치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지난 2년여간 전 세계를 누볐다. 각 분야 학술대회 현장을 찾아가 한국 홍보 부스를 만들고 알려왔다. IGC 유치를 위한 한·중·일 협력체계도 구축해 놓은 상태다. 그는 "중국과 일본 지질학회와 협약을 맺고 3개국 각 10곳에 현장답사 코스를 만들고 몽골 고비사막도 추가했다"며 "2024년 IGC가 한국에서 개최될 경우 대회 전후로 전세계 학자들



이 어디든 가서 연구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2017년 대한지질학회가 창립 70주년이고, 2018년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개소 100주년을 맞습니다. IGC를 유치하게 되면 한국 지

질학 역사상 최고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허 교수는 IGC 유치 외에도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위해서도 일 틈틈이 노력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공룡 전문가'인 그는 "오는 11월 유네스코 파리본부에 제안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선 지질학적인 우수성과 보존관리방안 이 두 개 분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브랜드 개발과 지자체 협력이 많이 요구되는데, 전남대 공룡연구센터에서 지자체와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심사는 2018년 초가 될 것 같다"며 "IGC 유치와 무등산 주상절리대 세계자연유산등재를 이룰 수 있도록 힘 쏟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IGC 유치는 꿈같은 이야기였지만 이전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결과는 세계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행사를 유치하면 한국이 세계 지질학 연구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두드림' 첫 운영회의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16일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소방서 현장대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두드림' 첫 운영회의를 열었다. <광주시 제공>

중흥건설, 축하화환 대신 받은 현금·쌀 기부



중흥건설은 16일 광주 '호천1지구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개관식에서 축하화환 대신 받은 현금 664만원과 쌀 40포대를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중흥건설 제공>

인사

- ◆조달청 ▲박정환 광주지방조달청장

금호타이어, 저소득 청소년 위한 '희망의 공부방' 개설

금호타이어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의 공부방'을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노모양(15)의 자택에서 '함께 그린(Green) 희망의 공부방 1호점' 오픈식을 가졌다. <사진> 함께 Green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수도권 내 청소년(중·고등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도배와 조명을 비롯해 PC, 책장, 책상 등의 가구 지원을 통해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사내 사회공헌활동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로, 금호타이어는 이를 향후 회사의 장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4호점까지 완공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공부방 조성을 확대하고 사후 관리를 지



속한다는 계획이다. 조남화 금호타이어 경영지원담당 상무는 "희망의 공부방 지원 활동은 금호타이어가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부활동의 연장선"이라며 "희망의 공부방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습 의욕 고취와 안정된 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우리 동은 우리가 지킨다" 풍암SOS희망기동대 출범

광주시 서구 풍암동(동장 장기영)은 최근 '우리동은 우리가 지킨다'를 주제로 복지통장·보장협의체·자치위원회 등 200여명 참여한 가운데 '풍암SOS희망기동대' 출범식을 가졌다. 풍암SOS희망기동대는 올해 6월 풍암동이 복지허브화 추진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민간자원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구노인대학장 류석인 교수가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풍암동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장기영 풍암동장은 "민·관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 무용 산증인 송준영 조선대 명예교수 별세

한국무용 명인인 송준영 조선대 무용과 명예교수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송 명예교수는 전통춤의 보전과 현대화 작업에 매진해온 무용가로 특히 한성준의 '훈령무'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힘써왔다. '훈령무'는 근대 전통춤의 거장 한성준(1874~1941)이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의 모습을 춤사위로 풀어낸 전통춤으로 그의 손녀인 한영숙의 고증을 거쳐 송 명예교수가 1978년 재안무해 선보였다. 송 명예교수는 광주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으나 춤에 심취해 무용계에 발을 디뎠다. 부산시립무용단 상임연



장으로 있다가 1974년 조선대 무용과 전임강사로 부임하면서 교단에 섰다. 한국무용협회 광주시지회장 및 고문, 광주한국춤연구회 이사장, 광주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위원, 광주주비엔날레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대표안무작으로는 '열녀문', '바다는 바다는 울고 있더라', '미리내 가지버시', '소쇄원 48영' 등이 있다. 빈소는 광주스카이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9일 오전, 장지는 고충선영이다. <연합뉴스>

'대통령 만화' 그린 시사만화가 백무현 화백 별세

역대 대통령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만화시리즈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던 시사만화가 백무현 화백이 지난 15일 별세했다. 향년 52세. 16일 유족에 따르면 백 화백은 올해 4월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전날 오후 11시55분께 숨을 거뒀다. 고인은 1988년 평화신문 창간과 함께 시사 만평을 연재했고 서울신문에서 활동하는 동안 대통령 만화 시리즈 등 진보적 색채의 작품을 선보였다. 2005년 '만화 박정희'를 시작으로 '만화 전두환', '만화 김대중', 지난해 '만화 노무현'까지 전직 대통령을 그린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걸출된 한국 현대사를 다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각과 군부독재



를 정면 비판하는가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 등 재미 시가 굵직한 사건들을 생생히 묘사하며 날선 칼날을 들이쳤다. '월간 말'과 '노동자신문' 등 진보적 매체에 만평을 다수 실었다.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회장을 지내면서 냉전·학벌·남성중심 이데올로기에 물든 시사만화계를 자정하겠다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12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정치에도 발을 들였다. 지난 4월 총선 때는 고창인 여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중천회

▲고시 광주중문회(회장 고정주) 하계 자유회=20일(토) 오전 10시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340-21 남창계곡 남창농원 061-393-0482. 집결장소 광주시 북구 중흥동 고시 광주중문회관 앞 광광버스 대기, 오전 10시30분 출발, 문의 총무 010-9430-9129. ▲전주씨매대동중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회장 이보희) 이화월례회=22일(월)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문회

▲조대부고 제18회 동창회(회장 김인수) 월례회=18일(목)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남문로 759번길9-1 예술회관 062-227-3377.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

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 운영=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무료 상담 062-654-3802. ▲광주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북구지역주민(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진행. 만성정신장애인 대상 가정 방문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062-267-5510.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 상담전화 1577-0199, 062-600-1908(담당자 조우상)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상담·안정제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수강생=27일(토) 오후 1시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9층 904호, 양태·음택·수택·나경·입향론·비결명당·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상, 영상강의와 책자 무료 제공, 접수문의 010-3609-8117.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30분~7시30분. 011-618-7882.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

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손님용 목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심정재가 장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정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차량목적),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부음

▲전유현씨 별세 오송은(GP테크 대표)·유현(세무법인 다솔 부회장)·현삼(전 전남 영광우체국장)·영상(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미경·한수(성지정밀 대표)씨 모친상 여미원(빛고을전남대병원 간호팀장)씨 시모상 김영재(사업)씨 빙모상 오민지(전남일보 기자)씨 조모상=발인 17일(수) 광주시 서구 천지장례식장 202호실 062-527-1000.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접객실·분향실 사용료 전액무료

개업 10주년 기념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 학동 중심사역 입구 |
☎ 062·227·4000

개업 5주년 기념

현대식 간소화 장례예식 전문
송정장례식장
| 광주공화 대로변 |
☎ 062·941·4400